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4. 07. 24(목)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07. 23.

나. 제안자 : 유일용 의원(찬성자 6인)

다. 회부일자 : 2014. 07. 23.

라. 상정일자 : 2014. 07. 24.(제2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유일용 의원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개발 등 고도성장의 일로에 있고, 인천 거주민의 300만명 달성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임박함
- 이러한 급속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가적·지역적 대형 사고의 그늘이 있어 왔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에 따른 재난관리 공간의 확산, 초

고층 건축물 건설, 공항·항만 시설의 확대,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 상존 등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완전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방, 인적·물적·자연적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 기능을 소방안전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효율성을 발휘, 우수사례로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지방소방정)의 가교 역할을 할 차상위 직급(지방소방준감)의 간부가 없어서 평상시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 구현 및 재난발생시 책임 있는 차상급자에 의한 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게 119서비스의 질 저하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 진급후 11년이 경과하면 자동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사기 저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 선진형 관리체계 정착, 2014아시아 경기 대회 성공적 개최 및 일원화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이라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분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 나. 주요골자

-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공항·항만·화력발전소·LNG 기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 남북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서해도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위협

상존과 9월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 등으로 인천광역시의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소방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시민에게 고도화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분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소방조직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인천시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소방안전본부장 체제하에 부(部) 본부장 직제신설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소방안전본부의 인원은 인천시 정원의 약40%에 달하는 2,256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 지휘자인 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분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부분부장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한편,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부산만이 소방본부장을 2급 상당의 ‘소방감’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본부내 3명의 ‘지방소방준감’ 직제를 두고 소방담당 과장을 운영하는 반면, 인천은 해당 직급이 없어 하위직급인 ‘소방정’으로 과장 직제를 운영하는 실정임
- 인천시민 300만 도래를 목전에 두고 위상에 걸맞는 市 조직개편 및 조직확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난현장의 위험 노출부터 각종 생활민원 동원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선제적인 대응마련을 위하여 우리시 소방조직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며

- 소방공무원 정년규정으로 인해 현재 우리시의 경우 ‘지방소방정’에서 상위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승진할 직제가 없음에도 ‘소방정 11년’의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불합리하게 퇴직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어 인천시민을 위해 봉사한 일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분부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영은 위원>

- 소방업무 효율적 관리체계와 시민 안녕을 위하여 적절함.

##### <이용범 위원>

- 본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늦은감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임.  
관련 부처는?  
⇒ 안전행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 필요 오늘 시장님 결재 받아 동시에 추진하게 되어 큰 힘 될 듯함.
- 지난번 송영길 시장때도 추진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 안전행정부의 조직에 대한 보수적 판단 기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인천소방안전본부는 4급 14명, 2급 1명으로, 3급이 없어 4급으로 정년 퇴임하는 실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의안으로 판단.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위원
-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1부. 끝.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119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의안 번호	37
----------	----

발 의 년 월 일: 2014. 7. 23.

발 의 자: 유일용 의원  
(찬성자 6 인)

## 1. 주 문

-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라 초고층건축물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공항·항만·화력발전소·LNG 기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 남북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서해도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 상존과 9월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 등으로 인천광역시의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소방현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시민에게 고도화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분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개발 등 고도성장의 일로에 있고, 인천 거주민의 300만명 달성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임박함

- 이러한 급속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천암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가적·지역적 대형 사고의 그늘이 있어 왔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에 따른 재난관리 공간의 확산, 초고층 건축물 건설, 공항·항만 시설의 확대,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 상존 등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완전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방, 인적·물적·자연적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 기능을 소방안전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효율성을 발휘, 우수사례로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지방소방정)의 가교 역할을 할 차상위 직급(지방소방준감)의 간부가 없어서 평상시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 구현 및 재난발생시 책임 있는 차상급자에 의한 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게 119서비스의 질 저하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 진급후 11년이 경과하면 자동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기 저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적 특수성, 선진형 관리체계 정착, 2014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일원화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이라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분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3. 이 송 처 : 청와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인천광역시

4. 첨 부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1부.



# 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119서비스 고도화 방안)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의 세계적 중심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 이름만 거명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굵직한 신도시들의 힘찬 융틀임에 힘입어 삶의 공간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인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이 어느덧 3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되었던 인천의 잠재력은 급기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집약되어 분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는 이면에는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아픔속에 휩싸였던 국가적 사건으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이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1999년에 가까운 이웃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재난환경이 순탄치 만은 않습니다. 신도시 내에 초고층 건축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축되고 있고, 한류·교역량 증가로 공항·항만 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과 인접하여 서해 도서 등 접경지역에 대한 도발위협이 상존하는 등 소방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다양한 각종 재난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찍이 타 시·도와는 차별되게 소방, 인적·물적·자연적 재난 및 비상사태 대응 기능을 소방안전본부로 일원화한 완전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지방소방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차상위 직급이 없으므로 평상시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고 재난발생 시 책임 있는 차상급자에 의한 강력한 현장지휘권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서울·경기·부산에서는 지방소방준감을 5명 내외로 운영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하고 있으며 현장지휘권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 진급후 11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기 저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립의 곤란 및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 등은 119서비스 질(Quality) 저하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 타 시·도 보다 앞선 선진형 관리체계 정착,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고려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이라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인천소방안전본부에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하는 1·2부분부장직을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7. 2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